

“섬진강케이블카, 구례 관광객 1000만 시대 출발점”

군, 7일 오산권역 케이블카 하부정류장 부지서 기공식
사업비 500억·길이 2.34km 규모…민·관 협력 프로젝트도

구례군이 천혜의 자연관광자원인 섬진강을 기반으로 ‘관광 메카’ 도약에 나선다.

3일 구례군에 따르면 오는 7일 오후 2시 오산권역 섬진강케이블카 하부정류장 부지에서 구례 섬진강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기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공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권향엽 국회의원, 김순호 구례군수를 비롯해 주요 내빈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섬진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출발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구례 섬진강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오산정상(해발 542m)과 섬진강 일원을 연결하는 대규모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군이 민간사업자인 쿠다우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 중인 핵심 관광 프로젝트다.

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

역량을 집중해 왔다. 지난 2022년 3월 구례군과 쿠다우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2024년 11월 전남도로부터 구례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를 완료했으며, 2025년 1월에는 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지령도면 고시를 마쳤다. 이러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함에 따라 이번 기공식을 개최하게 됐다.

구례 섬진강케이블카 길이는 2.34km(사업 약 542m)과 섬진강 일원을 연결하는 대규모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군이 민간사업자인 쿠다우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 중인 핵심 관광 프로젝트다.

구례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지령도면 고시를 마쳤다.

군은 지난해까지 총 9개 사업에 722억 원을 투자해 섬진강 힐링생태공원 등 4개 사업(188억원)을 이미 준공했으며, 섬진강 보도교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다. 군은 이를 통해 오산권역을 구례군 관광의 중심지자 대표 관광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 섬진강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구례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며 “이번 기공식이 구례군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구례군은 구례 섬진강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기공식을 오는 7일 오후 2시 오산권역 섬진강케이블카 하부정류장 부지에서 개최한다. 사진은 구례 섬진강케이블카 조감도.



순천만집월드에서 가족 단위 체험객들이 겨울방학 이벤트를 즐기고 있다.

순천만집월드, 아이들 웃음 ‘한가득’ 체험·공연·보물찾기 등 대모험 인기몰이

순천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순천만집월드에서 운영 중인 ‘겨울방학 대모험! 꿈 보물찾기’ 이벤트에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만들기 체험

과 공연, 보물찾기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도록 구성. 방학 기간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는 가족 방문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뚝딱

작과 공작’에서는 4D프리미엄을 활용한 자전거와 자동차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고 있다. 직접 조립하고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어, 체험 현장은 활기찬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

는 프로그램은 ‘꿈 보물찾기’ 미션으로,

체험관 곳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과정

에서 아이들이 놀이와 탐험의 재미를 동

시에 느낄 수 있어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뚝딱작과는 인근 순천로 복교우과학관까지 방문하며 체험을 이어가고 있다. 로봇교우과학관에서는 레이저 각인·화가 로봇 등 15종의 로봇 체험 프로그램과 ‘프리즘 코어를 찾으라’ 로봇 공연을 운영하고 있으며, 로봇 카페를 통해 아이스 크림과 커피를 제공하며 체험객들에게 실생활 속 로봇 서비스를 체험하는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순천=박칠석 기자

광양만권 3개 시 인구 2년 연속 60만명대 그쳐

여수·순천·광양, 지난해 69만4035명…전년보다 4802명 감소
석유화학·철강산업 불황 주요 원인…“광양만권 협력 강화를”

여수·순천·광양 등 광양만권 3개 시 지역의 인구가 2년 연속 60만명대에 머물렀다.

3일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 등에 따르면 여수·순천·광양 등 광양만권 3개 시 지역의 지난해 인구 수는 69만4035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4년(69만8837명) 보다

3개 시 가운데 광양시는 인구 증가가 이뤄진 반면 여수시와 순천시 인구가 줄면서 인구 감소세가 지속됐다.

광양시는 2023년 15만266명에서 지난해 15만5259명으로 2년 간 259명이 증가했지만, 이 기간 여수시는 8412명, 순천시는 2635명 각각 감소했다.

철강과 석유화학단지가 입주해 있고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율촌산단 등지에 기업 유치가 꾸준하게 이어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인구자

연감소에 따른 원인도 있지만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극심한 불황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양구 광양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광양만권의 인구는 철강산업 부진과 석유화학 경기 침체로 당분간 인구 감소현상은 지속 될 전망이다”며 “광양만권의 발전과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는 여수·순천·광양이 협력해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장흥, 산림재난 대응체계 본격 가동

45명 산림재난대응단 발대

장흥군은 최근 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산불과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대응단 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김성 군수, 산림재난대응단 원들이 참석해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지역 산림과 군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올해 산림재난 대응 인력을 총 45명으

로, 산불 예방 활동을 비롯해 산불 진화,

군은 봄철 산불 등 산림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 맞아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한편, 관계 인력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산림재난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성 군수는 “산림재난은 사전 예방과

구례, 올해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

상·하반기 각각 1인당 60만원 지급

구례군은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해 2회에 걸쳐 60만원을 지급한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한차례씩 시행된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2~5월, 하반기 신

청기간은 9~12월이다.

군은 오는 10일까지 접종지급 기간으로

현장에서 지급하게 된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와 도농 간 성장 불균형을 완화하는 미중립이 되길 희망한다”며 “기본소득사업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향후 기본 소득 정책의 확대, 고도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구례=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고흥, 관광 100만 시대 행정 역량 강화 ‘온힘’

철도여행 홍보·축제 콘텐츠 고도화 논의

고흥군은 최근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2026 관광업무 정책 공유 워크숍을 개최하고, 관광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공유·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관광 정책을 현장 실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계기가 됐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고 관광객과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관광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주요 관광지 입장료 지역별 상품권 환원 정책, 우주철도 999 철도여행 상품 운영,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블루마린 자전거 여행상품 브랜드화, 지속 가능한 고흥관광 환경 조성 등 관광 콘텐츠 개발과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대를 통해 2028년까지 관광객 1000만 시대 달성을 목표로 관광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워크숍에서는 관광정책 추진 방향과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실무 협의가 진행됐다.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철도여행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